



소

강보합세 유지



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달부터 일부 대형마트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하였다. 존시되자마자 가격 경쟁력은 앞서워 소

미시장을 잠식하더니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앞 다투어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. 추석 성수기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적인 판매는 국내산 쇠고기 시장의 커다란 변수임에 틀림없다.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소 값은 꾸준한 소비가 이어지면서 예상외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. 7월 중순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적 판매로 인한 심리적 요인으로 산지준하불량이 증가해 잠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추석성수기를 앞둔 시점이어서 과도한 준하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예상치 못했던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과정에서 등뼈가 든 상자가 발견되면서 검역중단으로 이어져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일정이 당분간 불투명해짐에 따라 소 값 하락세가 주춤해진 상태이다. 따라서 심리적 요인으로 출하가 불려 산지 소 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시장에서 소 값의 하락을 주도할 만한 큰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 냉철까지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. 이런 때일수록 성수기인 추석시점을 내미한 계획 출하가 필요한 시점이다.

돼지

이렇다 할 호재 없다.

여름휴가로 인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돼지 값은 기대를 한참 벗어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. 수위산 돼지고기의 국내시장 잠식과 망학으로 인한 학교급식중단으로 미인기 부위의 재고 누적 등 이리 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겹쳐 큰 폭의 상승세도 큰 폭의 하락세도 없이 전년 대비 15~20% 떨어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. 우리나라 소비시장에서 수입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상태에서 대형유통매장에서 미산쇠고기의 판매실시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. 미국산 쇠고기 판매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판매량이 10%이상 감소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력을 실감했다. 그러나 다행인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과정에서 SRM(특정위험물질) 위험 물질인 직후가 들어있는 상자가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시장에서 볼 수 없게 된 것이 큰 다행이다. 8월 중순이후 이듬휴가철이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 이렇다 할 호재마저 사라지게 된다. 인조부터 과도하게 수입된 지가의 수입 돼지고기는 체고 파다로 항상 위협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.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비자의 선택은 농가에게 가혹하게 다가왔다. 휴가 이후 소비위축으로 돼지값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.

<일간미트뉴스 제공>

